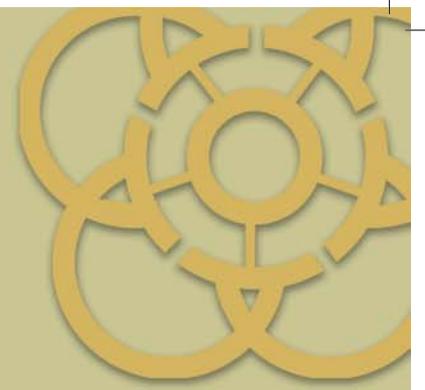


第 11 號

“천년온천의 찬란한 문화 · 자랑스런 우리고장”



# 아산 타이딩

A-san Tidings



[www.onyang.cult21.or.kr](http://www.onyang.cult21.or.kr)

온양문화원

## 인생은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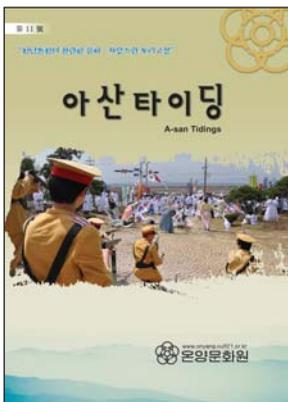
인생은 연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연출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의 모습과 미래는  
자신의 연출에 달렸습니다.  
연출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먼저 자신이 항상 밝고 잘 웃는지 보십시오.  
주위에 좋은 모델이 있으면  
바로 복사하십시오.

정말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가벼워져야 합니다.

매 순간 긍정적이고,  
몸도 많이 쓰고, 잘 웃다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2010년 봄호 통권 제11호  
발행일 2010년 4월 5일  
편집인 이 일 용  
발행인 김 시 겸  
발행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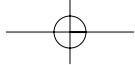
온양문화원  
충남 아산시 온천2동 206-24  
전화 545-2222, 548-8848  
팩스 542-4444  
이메일 onyangcc2@hanmail.net

편집 · 인쇄  
중앙인쇄사  
충남 아산시 온천동 1804  
전화 544-9943  
팩스 544-9948

# 2010 아산타이딩

통권 11호 Spring

- 03 문화원소식-신년인사회, 정기총회, 민속놀이경연
- 04 선장에 올려퍼진 들풀의 함성-대한독립만세!
- 06 새인물-아산경찰서장외
- 08 취미생활-천연염색의 묘미에 푹 빠졌어요!
- 10 새롭게 만나는 2010 아산성웅이순신축제
- 12 재경향우회 회원 특별기고-아산의 이미지
- 14 재경향우회등 장학증서 수여식
- 15 우리 지역 문화재는 우리가 지킨다-문화원여성회
- 16 현장체험-도깨비도로?
- 18 우리 지역 문화재 이해-기사계첩
- 20 신간-아산의 입향조
- 21 2010 문화강좌안내
- 22 2010 온양문화원 연중행사



# 문화원 소식

# 1

A-san Tidings

## 시민화합의 장...경인년 신년인사회

2010년 경인년 신년인사회가 1월 4일 오전 온양그랜드 호텔에서 기관단체장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400여명의 지역인사 및 시민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시루떡 절단, 신년시 낭송, 건배제의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헬로부라더스가 '내사랑 아산이여'를 불러 관심을 끌었다.



매년 온양문화원이 새해를 맞아 개최하는 신년인사회는 새해인사 및 덕담을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의미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 2010 온양문화원 정기총회

온양문화원 2010년 정기총회가 2월19일 법인회원 106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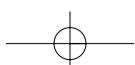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 예산결산승인 및 2010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과 임원선거 관리규정과 정관개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민속놀이경연대회 개최

정월대보름을 맞아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 경연을 통한 시민화합을 도모하는 민속놀이경연대회가 2월 28일 신정호국민관광단지에서 300여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비나리 공연에 이어 윷놀이 단체전과 제기차기(남,여), 연날리기(남,여)종목별 참가자들의 예선전이 치러졌다. 이날 경연대회에서 윷놀이 단체전 우승인 운수대통상에는 온아8기가 영광을 차지했다.

민속경연과 함께 전통민속놀이인 팽이와 딱지를 준비하여 직접 만져보고 쳐보는 등 참가시민들의 향수를 달랐다.





선장에 울려 퍼진 들뜬의 함성

"대한독립만세!~"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 및 추모제 거행

91년 전 1919년 4월 4일 일제에 항거해 치열한 독립만세운동의 불을 지핀 역사의 현장에서 '제2회 아산독립만세운동'이 재현됐다.

4월 4일 오전 선장면 선도중학교 대강당과 기미독립·무인멸왜기념탑에서 500여명의 아산시민 및 유족, 학생이 참가하여 일제에 항거했던 우렁찬 만세소리를 재현, 선장 들녘을 뒤흔들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독립만세 운동 재현극을 펼치고 기미독립·무인멸왜기념탑 현장까지 약 1.5km 거리를 행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올해는 시단위 행사로 추진하여 온양문화원과 광복회아산지회가 공동으로 주관, 처음으로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펼쳤다.

선도중학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교문을 나서 만세운동을 외쳤던 선장장터에 도착하여 대한민국만세를 외치자 숨어있던 왜병들이 갑자기 나타나 충격을 가하고, 체포하여 만세운동 기념탑까지 호송한 후 처형하기까지의 내용을 퍼포먼스로 담았다.

기념탑에서는 아산지역의 독립운동 선현들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박진일 신창향교 전교의 집전으로 거행됐다.

특히 이번 만세운동에는 온양문화원에서 미리 '나도 독립운동가'를 모집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참



가를 유도하여 역사적인 현장에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무공수훈자회 아산시지회(지회장 김준희)에서는 현장에서 손태극기 300여매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태극기 보급운동을 펴 나라사랑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군중들이 거리로 나섰다.



만세를 외치다 순국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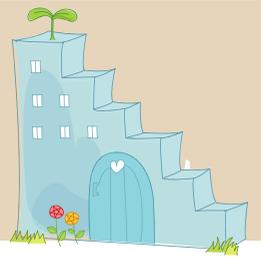
처형마당



대한독립만세!



## 새/인/물



### ▶ 양정식 아산경찰서장 1월 21일 취임 “시민이 안전한 아산 만들겠다”



제63대 아산경찰서장에 양정식 전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이 1월 21일 취임했다.

충남 홍성출신인 양 서장은 동국대를 졸업 79년 경찰간부후보생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충남 지방경찰청 보안과장, 청양경찰서장,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고 2009년 2월부터 경찰교육원장 직무대리로 경찰교육원이 개원하기까지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양 서장은 취임식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아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조영수 전임 서장은 대전경찰청 경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5대 의회 역할 충실히 수행하겠다.”

### 정거목 의원, 아산시의회 의장 당선

아산시의회는 4월 9일 오전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새로운 의장에 정거목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신임의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10명 중 김학복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가해 8표를 얻은 정거목 의원이 당선됐다.



정거목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장 선출에 이어 실시된 상임위 위원장 선거에서는 9표를 얻은 조기행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8표를 얻은 김귀영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 ▶ 이상신 아산우체국장 1월1일 취임 “고객을 위한 우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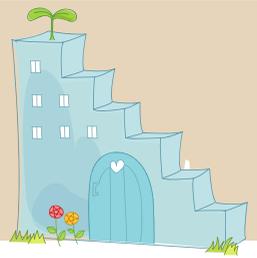


제30대 아산우체국장에 이상신 전 동래우체국장이 1월 1일 취임했다.

이상신 국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1976년 신평우체국 근무를 시작으로 당진우체국, 조달사무소, 체신부 전파관리국, 서울우편집중국 업무2과장, 유비쿼터스정책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국장은 기획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7년 12월 4일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동래우체국장을 역임하는 등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소유자로 직원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취임사에서 “고객을 위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우체국 제29대 국장을 지낸 박주석 전 국장은 서울우편집중국장으로 전보됐다.



새/인/물



**“고객을 위한 최고의 민원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현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장 4월 5일 취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장으로 김현제(58)씨가 4월 5일 취임했다.

김 지사장은 충남 천안출생으로 1989년에 입사해 당진지사장, 공주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인화를 우선하는 친화력과 치밀한 기획력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김현제 신임지사장은 “고객인 국민을 위한 최고의 민원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덕 온양향교 전교 3월30일 취임 “교육기능강화, 향교운영활성화에 주력하겠다.”**



권태신 전교의 유고로 공석이던 온양향교 전교(典敎)에 아산경찰서장을 지낸 박종덕씨가 추대돼 3월 30일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박 전교는 송악 외암리 출신으로 공주, 온양, 대전중부경찰서장을 거쳐 아산시 제2건국추진위원장, 민주평통아산시협의회장, 아산시 노인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 수필가협회, 한국문인협회 아산시서예협회회원, 성균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종덕 전교는 취임사에서 “충효교실과 한문서당을 확대 운영하는등 향교본연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유림강좌를 개설하여 향교운영의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향우회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종혁 재경온양아산향우회 사무국장**

재경온양아산향우회 김경중 전 사무국장의 후임으로 이종혁 사무국장이 부임했다. 신임 이종혁 사무국장은 아산시 염치읍 백암1리 출생으로 송곡초(17회) 온양중(10회) 온양고(13회)를 졸업했다. 이 사무국장은 400여 재경온양아산향우회 선후배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고향사랑, 향우사랑, 인재육성을 목표로 향우회 발전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골프회, 산악회, 기우회, 여성부, 청년부등 취미, 직능별 조직을 육성하여 조직배가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염치읍 명예읍장을 맡아 고향을 향한 열정으로 회원 누구나 즐겨 찾고 신명나는 향우회를 만들기 위해 고향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는 이종혁 사무국장. 향우회와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 본다.



| 취미생활 |

# “천연염색의 묘미에 푹 빠졌어요!”

온양문화원 생활염색반 회원 이운영



온양문화원 생활 염색반 자연염색 모임의 수강생이 된지도 어언 2년이 되어간다.

온양 문화원 생활염색반의 생활을 돌아보면 2년 동안의 시간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온 것 같다.

지도 선생님이신 이미선 선생님의 지도하에 다수의 전시회도 경험하였고, 진주실크공모전과 충남산업디자인협회의 공모전 등 다수의 공모전에 참가하여 입상의 결과를 맛보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평소 접하기 힘든 패션쇼를 제작, 참여해 봄으로써 염색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였다.

처음 염색을 접했을 때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접해 본 훌치기기법을 통한 염색만이 존재하고 천연염색이라는 한 분야만이 전통공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 준 전시회를 접할 수 있었다. 그 전시회는 현재 온양문화원 생활 염색반의 지도 선생님이신 ‘이미선 선생님(↑2009. 11. 자연염색모임 패션쇼) 의 모시 염색 전’ 을 통해서였다.

전시를 보면서 염색은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천연염색을 통한 조각보나 한복 등의 국한된 범위에서 전통염색을 뽑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시각과 정서에 맞도록 재탄생 된 염색 작품들을 통해 염색이 현대 시대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를 본 이후 점점 염색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온양문화원에 염색반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염색반 강좌에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다.

처음 생활 염색 반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염색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염색을 나만의 느낌대로 표출해 나갈 수 있을까?’ 등 여러 생각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잠시였고, 선생님의 1:1 지도와 생활염색반 수강생들의 여러 작품을 보고 서로의 염색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친근감과 자신감이 생겨나고 염색에 대한 관심과 실력이 나날이 늘어갔다.



회원작품전시회에 출품된 다양한 염색작품들



또한 염색은 할 때마다 다른 결과물을 가져와서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것 같다.

하얀 천에서부터 아름다운 자연의 색으로 재탄생한 후 나만의 스카프, 넥타이, 가방, 모자 등의 소품으로 변화하는 생활 염색소품을 기다리는 시간도 매우 흥미롭다. 또한 훌치기염색 기법 외에도 파라핀을 이용한 염색과 양모를 이용한 염색 등 다양한

소재로 염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차츰 배워가면서 염색의 다양한 면을 배워나가고 있다.

처음엔 작은 시각의 변화로 염색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은 나뿐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마저도 염색에 관심을 갖고 집안의 인테리어 소품이나 패션 소품으로 생활염색 소품을 지니고 싶어 하는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요즘 나는 염색을 통해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나만의 개성 있는 작품들과, 다양한 색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염색이 현재의 일시적인 취미생활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띤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고,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정서에 맞고, 색을 통한 인성치료가 가능하기도 하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염색을 기계에 의해 제작된 옷과 전통적인 천연염색에 대해 일부만 알고 많은 사람들이 염색의 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아쉽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처럼 작은 시각의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장점과 개성을 지닌 취미생활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새롭게 만나는

# 2010 아산 성웅이순신 축제

## "청년 이순신의 꿈, 날개를 적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올해는 신정호국민관광단지 주변으로 장소를 옮겨 2010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관람객들을 만난다.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0년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신정호수 주변에 축제의 주제와 특징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공간 및 야경 디자인을 강화하고 가족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특히 신정호에 시민의 빛 터널 설치와 거북선과 판옥선 유등이 설치돼 야경을 연출한다. 가족오감 체험전, 어린이 해전 놀이터, 기네스도전 성웅의 길 등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쉼터를 조성하여 휴식을 갖도록 배려한다.

또한 기네스 도전 그래피티(벽화그리기), 시민창작 빛 터널 조성, 이순신장군 출정퍼레이드 등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순신축제의 메인이벤트인 주제전시관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e-sport관(충무공 해상대전), 3D입체영화관이 운영된다. e-sport관(충무공 해상대전)은 오프라인 체험행사와 온라인 게임이 결합된 Digi-Festival로 꾸며지며 각종 이순신 관련 게임을 체험할 수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형성한다.

체험행사로는 전통저자거리가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어서 축제의 볼거리로 빛을 내게 된다.

전통저자거리는 서당, 곤장체험, 전통두부만들기, 풀짚공예체험, 삼베짜기, 혁필등 체험마당과 엿장수, 식혜, 수정과 등 주전부리 마당, 포목점, 대장간, 악기전등 저자마당과 옥사체험, 활쏘기, 화포체험등 놀이마당으로 이뤄져 체험을 통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1961년 이충무공탄신일을 기념하여 4월 28일 처음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1962년 온양문화원과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제1회 온양문화제명칭으로 개최한 이래 2004년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올해로 제49회를 맞이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아왔으며, 매년 이순신 장군 탄신일인 4월 28일을 전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펼쳐지고 있다.

축제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아산문화재단(041-540-2428)으로 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asan.go.kr>)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 재경향우회 회원 특별기고 |

## 아산의 이미지.. “참 좋은 곳에서 왔구나!”

한국은행 감사 강태혁

이제는 아스라한 옛 기억 하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는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다.

까무잡잡한 천둥벌거숭이 스무나뭇 놈들을 인솔해 가신 분은 담임선생님과 사진기사 아저씨였다. 사진기사 아저씨는 졸업앨범에 넣을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요량으로 동행을 하셨지만, 담임선생님에게 아주 훌륭한 서울구경 가이드 노트를 해주셨다.

하루는 앞서 무리를 이끌고 가시던 사진기사 아저씨가 불현듯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얘들아! 길을 가다가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하고 누가 물으면 ‘온양온천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 하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좋은 곳에서 왔구나!’ 하고 반겨줄 거다.”

한 참을 걷다 보니까 정말 어떤 할아버지가 “촌놈들이구나,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우리들은 큰소리로 “온양온천에서 왔습니다.”하고 대답을 했다.

마음속으로는 ‘온양온천은 무슨? 송악에서도 한참을 더 가야하는 깡촌, 거산국민학교에서 왔으면서...’ 하는 가책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도 우리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갑자기 왕자라도 된 듯 기분이 좋았다.

할아버지는 “온양온천? 참 좋은 곳에서 왔구나!” 하면서 까까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고향 아산의 이미지는 예로부터 온천이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발명한 안질에 효험이 좋다하여 온천을 찾아 우리 고향을 다녀가셨다 하니, 그 역사는 반 천년도 넘을 것 같다.

1960~70년대 한참 산업화의 시동을 걸기 시작할 무렵만 해도 우리 고향은 결혼식을 막 올린 젊은 쌍쌍들이 신혼여행지로 즐겨 찾던 곳이었고, 흰머리 곱게 빗은 노부부가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 찾은 휴식처도 우리 고향 온양온천이었다.

이렇듯 아산?온양의 이미지는 온천이었다. 요즈음 못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아산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직도 ‘아산’ 하면 사람들이 온천은 떠올릴까? 현충사를 기억하고는 있을까?

해마다 4월 28일 이충무공 탄신 기념일이 다가오면 온 군민들이 정성들여 잔디를 입히고, 나무를 심어 치단장하고 가꾼 현충사를 ‘무슨 사찰이냐?’ 고 묻는 젊은이는 혹시 없을까 걱정도 된다.

더욱 마음을 애잔하게 하는 것은 한잔 술로 거나해져 네 고향 내 고향 서로 고향자랑 하다가 “내 고향 아산이요”하는 말과 함께 되돌아오는 응수는 “탕정 땅 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혹시 물려 받은 자갈논은 좀 없나?”이다.

그렇다! 아산의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온천도 아니고, 현충사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닌 것 같다. 다만, 땅 값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우리 고향의 이미지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아산의 이미지가 꼭 온천이어야 한다거나, 현충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다른 새로운 무엇이면 더욱 좋을 것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향 아산의 이미지가 무엇인가로 선명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더 나아가서는 유럽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나, 아산에서 왔습니다.” 하면, “참 좋은 곳에서 오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도시로 발전되어 가면 좋겠다.

우리 아산을 어떤 이미지의 도시로 창조해 낼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이미지의 도시를 일궈낼 것인가? 머리를 맞대어 그 답을 찾아내고 앞서서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산 사람들의 몫이 아닐지.



2008년 맑은 날 온양문화원 옥상에서 내려다 본 아산시 전경

## 재경향우회 등 5개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관내 중·고·대학생 155명 수혜

재경향우회(이사장 원철희)·아산(이사장 하장홍)·소강(이사장 임동순)·임천(이사장 박우석)·양준호(이사장 양미을) 5개 장학회는 4월 8일 오후 아산시청 3층 시민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증서는 ▲재경아산온양향우회(27명) 1230만원 ▲아산장학회(25명) 1830만원 ▲소강장학회(45명) 1960만원 ▲임천장학회(30명) 2100만원 ▲양준호 장학회(28명) 1904만2000원 총 9084만2000원을 중·고·대학생 155명에게 수여했다.



임동순(소강 장학회)이사장은 재경향우회를 비롯한 아산·소강·임천·양준호 5개 장학회는 20여년간 생존경쟁의 주인공인 인재양성을 위해 고향 후배에게 격려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며, ”차세대 주인공인 장학생들은 오늘을 시발점으로 더욱 분발해 고향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경향우회는 1991년 설립, 지금까지 중·고등 학생 474명에게 2억2650만원 ▲아산장학회는 1991년 설립, 중·고등 학생 492명에게 3억4300만원 ▲소강장학회는 1993년 설립, 중·고·대학생 597명에게 2억 6800만원 ▲임천장학회는 중·고등 학생 1676명에게 7억7000만원 ▲양준호 장학회는 2004년부터 중·고·대학생 60명에게 5263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 “우리 지역 문화재는 우리가 가꾼다!”

## 온양문화원 여성회 문화재 알리기·지킴이활동

온양문화원 여성회(회장 유학순)가 2010년도 사업으로 시작한 지역문화재 알리기·지킴이 활동이 4월 7일 영인, 인주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여성회원 40여명은 아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홍보하고, 지역문화재에 대한 회원교육을 실시하여, 시민홍보대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문화원 소속에 걸맞는 문화재 알리기·지킴이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



문화재 알리기·지킴이는 말 그대로 아산시 전역에 있는 문화재를 찾아가서 문화재를 이해하고 주변에 흩어져있는 오물과 쓰레기등을 수거하여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활동이다.

4월 7일 영인, 인주지역에 있는 아산향교, 김옥균묘소, 공세리성당등 주요 문화유적을 찾아 정화활동을 시작으로 매월 첫 주 수요일 송악·읍내동지역, 신창·도고·선장지역, 온양중심가 등 권역별로 찾아 실시한다.

여기에 여성회는 회원들에게 문화재 알리기·지킴이 활동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역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며, 아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도 지역문화재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온양문화원 여성회는 2007년 5월 온양문화원여성발전연구소로 창립하여 2009년 온양문화원여성회를 단체명을 변경하였고, 그동안 온양역 및 노인복지회관, 환한웃음의집 급식봉사, 태안기름유출제거작업, 명사 초청강연회 개최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여성중심의 자원봉사단체이다.



어~어~어 거꾸로 올라 가네....

# 도깨비도로?



어~어~어 정말 올라가네!  
 얼핏 보기에도 높아 보이는 도로.  
 그 도로를 향하여 액셀을 밟지 않는  
 데도 차량이 올라가고 있다. 정말 귀신  
 이 곡 할 노릇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라고 단정지어보지만 있다! 있어!  
 흔히들 말하는 도깨비 도로(?)가 우리  
 아산에도 있다.



온양온천역에서 도깨비 도로까지의 위성사진

아산시 초사동과 신창 황산리 경계에  
 있는 일명 갱티 고개다. 이 고개 정상  
 을 넘어가기 전 좌측 소로 약100m 구  
 간이 바로 그곳.

이 도로는 안쪽으로 완만하게 비탈져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비한 마음에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면 차가 뒷걸음질 치며 오르막으로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도로 초입부근과 끝에서 낚시터 입구로 급커브를 보이고 있는 바로 앞 부근에서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이러한 현상을 현장에서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실험이 있다.

첫 번째로 도로가 아래로 보이는 시점  
 에서 차량을 중립에 놓고 액셀을 밟지 않고 있  
 으면 차가 서서히 위로 보이는 도로로 올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물을 부어보면 물의  
 흐름이 높게 보이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페트병이나 빈병에  
 물을 절반쯤 담아 굴러보면 역시 높게 보이  
 는 도로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정말로 신비한 도로! 도깨비도로가 우리  
 아산에도 있었다.



KBS2 무한지대Q 촬영팀과 함께 물을 부어 흐르는 방향을 실험하고 있다.

이 도로를 발견하게 된 동기는 단순했다. 낚시를 왔던 외지인이 잠시 차량을 멈추고 전화를 걸고 있다가 차가 위로 밀려가는 것을 발견하여 낚시터 주인에게 얘기했고, 다시 김형배 온양아산향토사연구소 자문위원에게 전화로 제보하여 현장을 방문, 확인하게 되었다.

지역신문보도에 이어 KBS2 무한지대Q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 취재하는 열기에 힘입어 이곳을 찾아 실험을 해보는 실험맨(?)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낚시터 관계자는 귀뜸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31일 KBS2 무한지대Q 제작진이 직접 높이를 측정한 결과 낮아 보이는 도로 쪽이 198cm이고 높아 보이는 도로 쪽이 132cm으로 66cm의 차이를 보였다. 이 도로는 현재 송악으로 넘어가는 갱티 도로가 새로 신설되면서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건설된 도로는 높아 보이는 반면 이 신비한 도로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듯 보이는, 즉 눈으로만 오르막길로 보일뿐 실제는 내리막길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깨비 도로하면 제주도의 도로가 유명세를 탔지만, 국내에도 그 외에 경북문경, 경기도 의왕시, 충남 연기 전의, 울주군 언양 등지에 크고 작은 신비의 도로들이 있다.



도로의 높이를 잰 결과 낮아 보이는 ①번 도로가 198cm이고 ②번도로가 132cm로 66cm의 차이를 보였다.



우측이 새로 난 도로이고, 좌측이 문제의 도깨비 도로(?)이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눈으로 보거나 체험을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도로, 아산의 갱티고개 도깨비 도로를 찾아가자.

온양온천역에서 아산시 갱티길439번지(초사동 699-2)까지는 9.2km이고 약20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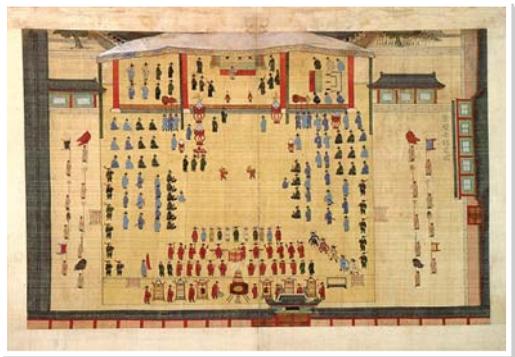


우리지역문화재 이해

기사계첩 (耆社契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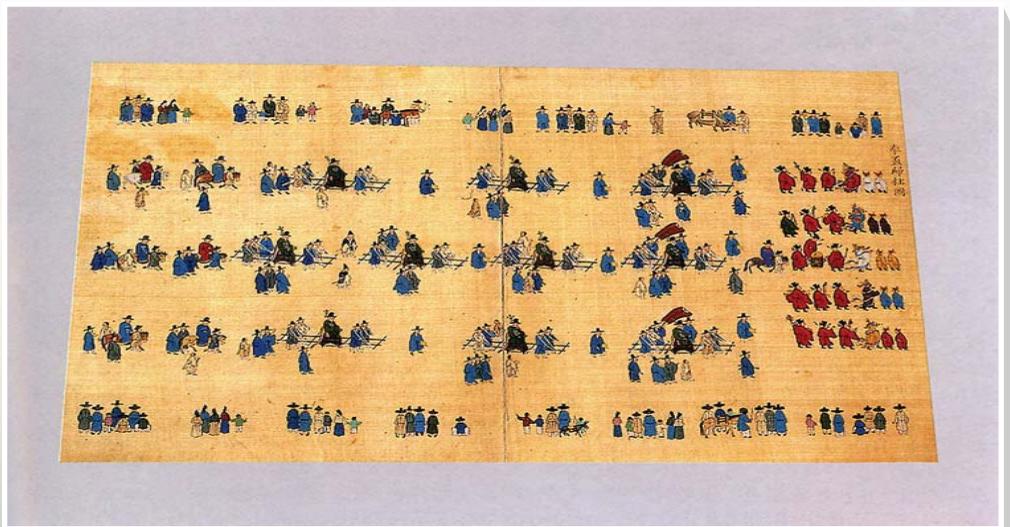
**아** 산시와 관련 있는 국가 지정 문화재 14점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화재가 보물 제639호(1978.12.7 지정)인 '기사계첩'이다. 기록화로서 계획도에 속하며 조선 후기인 숙종 45년(1719, 기해년)에 열렸던 기로회의 모습 등을 그린 화첩이다. 요즘으로 치면 기념사진첩인 셈이다.

조선시대에는 고관이 70세가 넘으면 기로소(耆老所)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때로 왕이 참석하여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1719년은 숙종이 59세에 특별히 기로소에 든 해이고 아산 지역에 연고가 있는 판돈녕부사 만퇴당 홍만조(洪萬朝, 1645~1725)가 75세 되던 해이다. 이 해 4월에 왕이 연회를



〈경현당 석연도〉

베풀었다. 이 모임에 이유(李濡)·김창집(金昌集)·김우항(金宇杭)·임방·황흠(黃欽)·강현(姜?)·홍만조(洪萬朝)·이선부(李善溥)·정호(鄭澹)·신임(申?)·최규서(崔奎瑞-초상화는 없음) 등 11명의 기신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화첩 12부를 만들어서 각자 1부씩 주고 1부는 기로소에 보관하였다.



〈봉배귀사도〉

우리지역문화제 이해



참여한 관원들의 명단을 적은 다음 어첩봉안도·승정전진하전도·경현당석연도(사진1)·봉배귀사도(사진2)·기사사연도(사진3) 등의 행사 장면을 그렸다. 그 뒤에 기신 11명의 좌목과 반신상 초상, 자필 축시를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계첩 제작에 참여한 감조관, 서사관, 화원의 명단을 적어 놓았다. 가로 53cm, 세로 37.5cm 크기로 총 50면에 이르는 화첩이다. 비단 바탕에 그린 채색화이며 행사 장면과 특히 10명의 초상화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로는 이듬해(1720년) 말에 완성되었다.



〈기사사연도〉

이 기사계첩의 그림은 어진(왕의 초상화) 제작에 참여했던 박동보, 장득만 등 다수의 어용화사들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의례도와 초상화 양식을 대표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때 제작된 12부 중에서 현재 4부가 전해지며 보존상태가 좋은 2부가 각각 보물 제638호(이화여대 박물관 소장본)와 보물 제639호로 지정되었다.

홍만조가 받았던 기사계첩은 배방면 세교리 안골에 터를 잡고 살아온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어 왔다. 홍석영(洪錫永, 81세)씨가 오랫동안 관리해오다가 도난 사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해 전부터 서울 송파구에 사는 아들이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아산시에 있지 않으니 아산시의 문화재인가 아닌가 궁금하기도 하다.

이 상황에서 아산 시민들이 함께 생각해봐야 할 점이 아산시립박물관의 건립이다. 신창 남성리 돌널무덤에서 출토된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 청동기들이 처음부터 아산을 떠나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최근에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개발 과정에서 발굴되는 선사시대와 고대의 유물들도 모두 아산시에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다.

각 문중마다 전해오는 귀한 자료들의 관리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이런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우리 고장의 공공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위탁 또는 기탁 운동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온양고등학교 교사 천경석



# 「아산의 입향조」 발간



온양문화원이 2008년 「아산의 인물록」을 발간한데 이어 아산의 성씨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침서 「아산의 입향조」를 펴냈다.

「아산의 입향조」는 처음 아산에 들어와 터전을 잡은 성씨를 파악하여 현재까지 아산에서 생활하는 후손들을 중심으로 자료에 담았다.

후손들이 소장한 문중의 자료를 비롯하여 묘비, 재실등 현장을 직접 확인, 총 150쪽 분량으로 진주강씨를 비롯한 일백선아홉 성씨를 수록했다.

「아산의 입향조」에는 선조 입향조를 중심으로 후손들까지의 행적을 조사하여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미 출향을 하였

거나 후손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성씨들이 다소 누락이 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책자발간을 위해 김시겸 온양문화원장을 비롯해 편찬위원들이 1년 동안 아산의 성씨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실이어서 후손들에게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아산의 입향조」책자에 관한 문의는 온양문화원(☎041-545-2222)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2010 문화 강좌 안내

## <수시모집>

강좌명	일시	인원	강좌내용	강사
다도	매주 월요일 10:00 ~ 12:00	20	차를 끓이고 마시며 대접하는데 따르는 정성과 예의범절 배우기	김공녀
천연염색	매주 월·금요일 10:00 ~ 12:00	20	염료와 직물을 사용하여 스카프, 넥타이, 손가방 등 나만의 색 표현하기	이미선
서예	매주 목요일 18:30 ~ 20:30	20	한글, 한문 기초와 사군자 우리민족의 특성과 민족적 의식을 대표한	홍승예
한국화	매주 화요일 09:30 ~ 11:30	20	우리 그림 그리기	박순래
전통매듭	매주 화요일 10:00 ~ 13:00	20	각종 매듭 기법을 배우고 목걸이, 장신구, 귀걸이, 핸드폰 고리 등 장신구 만들기	김남희
생활영어	매주 월·수요일 16:00 ~ 18:00	20	실생활에 필요한 대화 중심의 기초 영어 말하기	박기란
L E X	매주 목요일 19:00 ~ 21:00	20	온 가족이 함께 다언어(7개국어)환경에서 언어 CD듣고 말하기	이은숙
짚풀공예	매주 토요일 09:30 ~ 12:30	20	다양한 생활용구들을 짚과 풀로 짜고 엮어 직접 만들고 체험	한원택
이주여성한국어	매주 금요일 13:30 ~ 15:30	20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글과 우리문화 익히기	장미숙
왕실전통한과	매주 목요일 10:00 ~ 12:00	20	아름답고 맛있는 왕실전통 한과 만들기	이병옥

**수강료** 각 과목별 월10,000원(3개월 선납)  
 재료비 개인부담  
 ※단, 왕실한과는 재료비 포함 월 20,000원

**접수 및 문의** 온양문화원 TEL) 545-2222, 548-8488



2010년

# 온양문화원 연중행사



## 문화행사

### 신년인사회

- 일시: 2010.01.04 11:00
- 장소: 온양그랜드호텔
- 아산시 기관단체장과 문화가족 및 시민이 참석하여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함.

###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경연

- 일시: 2010.02.28 10:00
- 장소: 신정호국민관광단지
- 정월대보름을 맞아 우리 민족의 고유민속놀이인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엿치기등 다채로운 한마당 놀이 제공.

### 아산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 일시: 2010.04.04 10:30
- 장소: 선장면 일원(기미독립·무인멸왜기념탑 주변)
- 아산시 관내 각급기관장, 독립유공자 및 유족, 학생과 시민등이 참석하여 아산독립만세를 부르며 거리행진 및 추모제 실시.

###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전통저자거리 운영

- 일시: 2010.04.28~05.02
- 장소: 신정호국민관광단지
- 성웅 이순신장군의 애국정신과 충효정신을 기리며 전통저자거리를 재현하여 시민과 관람객참여와 체험을 하여 전통문화 대한 이해 증진

### 6.25전쟁 특별 기획전시

- 일시: 2010. 6월중
- 장소: 미정
- 6.25사진 전시를 통하여 전쟁의 참상을 바로 알리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

###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 일시: 2010. 8월중
- 장소: 온양문화원외 관내 유적지
-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교양강좌 및 취미생활을 체험토록하고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식함양을 위하여 문화학교를 운영.

### 고향의 날 행사

- 일시: 2010.9월중
- 장소: 미정
-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고향의 정을 느끼고 지역인사와 출향인사 서로간의 화합의 시간을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정보를 공유 아산의 발전에 기여함



### 10월 문화축제

- 일시: 2010. 10월중
- 장소: 미정
- 문화의 달을 맞아 관내 소재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백리 맹사성 및 아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골든벨 퀴즈대회를 실시하여 고불맹사성의 업적을 높이 기림.



### 온양온천문화예술제

- 일시: 2010. 10월중
- 장소: 미정
-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고불 맹사성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



### 문화가족 송년회

- 일시: 2010. 12월중
- 장소: 온양문화원
- 문화원 회원간 화합분위기 조성 및 문화원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 국내외 문화탐방

- 일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장소: 국내외 문화유적지 답사
-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는 기회제공.



## 향토지 및 소식지, 달력 발간



### 온양1동~5동 종합 향토지 발간

- 발간시기 : 2010.04월~2010. 12월
- 아산시 온양1동부터 온양5동까지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을 보존하고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함.



### 온양아산마을사 추록 발간

- 발간시기 : 2010.04월~2010. 12월
- 아산시 온양1동부터 온양5동까지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을 보존하고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함.



### 조선환여승람 아산편 번역 발간

- 발간시기 : 2010.04월~2010.12월
- 아산의 유래와 연혁 및 주요 지명(산천), 인명 등이 수록된 문헌자료를 해역하여 문헌적 기초토대 마련하고 아산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한다.



### 소식지 '아산타이딩' 발간

- 발간시기 : 분기별 총4회 발간
- 아산시 소식 및 문화원의 문화행사 소식을 매분기 책으로 발간하여 문화가족과 시민, 출향인사들에게 배부.



### 2011년 달력 발간

- 발간시기 : 2010년 12월중
- 아산의 문화재 및 문화원의 문화강좌를 게재하여 문화원 발전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



## 온양문화원

전화:(041)545-2222 Fax:(041)542-4444

E-mail:Onyangcc2@hanmail.net

홈페이지:www.onyang.cult21.or.kr

